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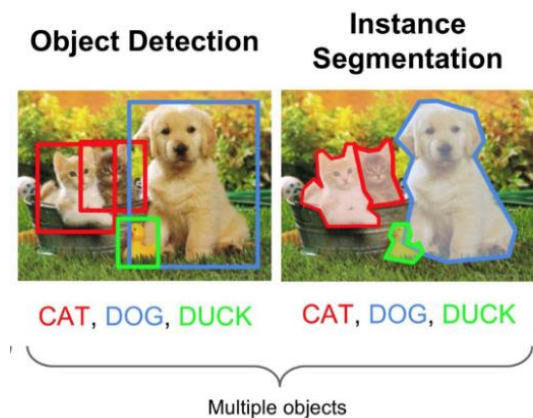
증강 현실 포토존 찾기 앱

- 무엇?: 세계 각국 관광지마다 있는 포토존을 찾아주는 증강현실 앱

1. 관광지 근처에 온 사용자는 앱을 통해 관광지를 선택한다.
2.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며 화살표가 나타나며 포토존으로 안내해주고 찾아준다. (GPS 통해)

- 어떻게?: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광지마다 잘 찍은 사진들을 모아 분석하여 포토존을 찾는다.

(+image segmentation: 사진을 조각내서 의미있는 단위로 나누는 것)



- 사용자 특혜?:

1. 관광지에 가서 중요하지 않거나 그곳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 곳에서 사진 찍고 가는 것을 방지
2. 관광지에 가서 사진 찍는 재미를 준다
3. 관광지의 역사적인 배경, 중요성을 한 사진에 담을 수 있다.

- 타겟층?: 관광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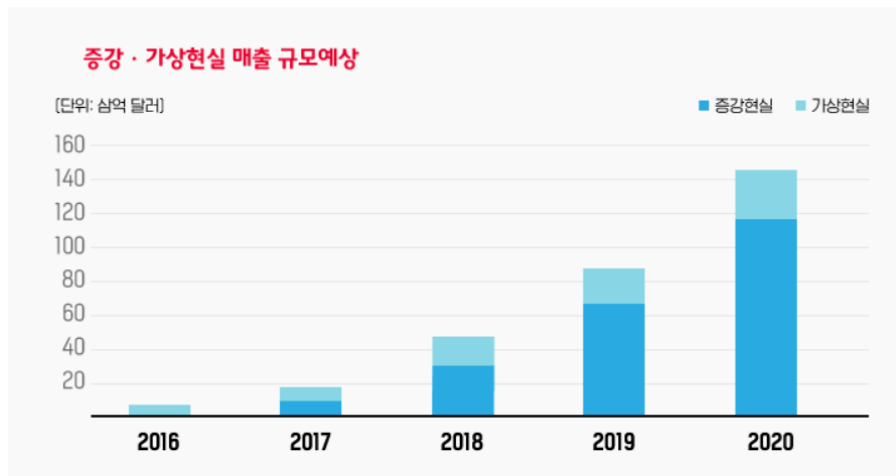
- 경쟁자?: 없음

- 수익성?: 1. 유료 앱 2. 최대 10번 무료 3. 광고 - 카메라를 키기전에 광고 하나를 보게 만든다.

(+예: 수익이 높았던 증강 현실 앱: "Pokemon Go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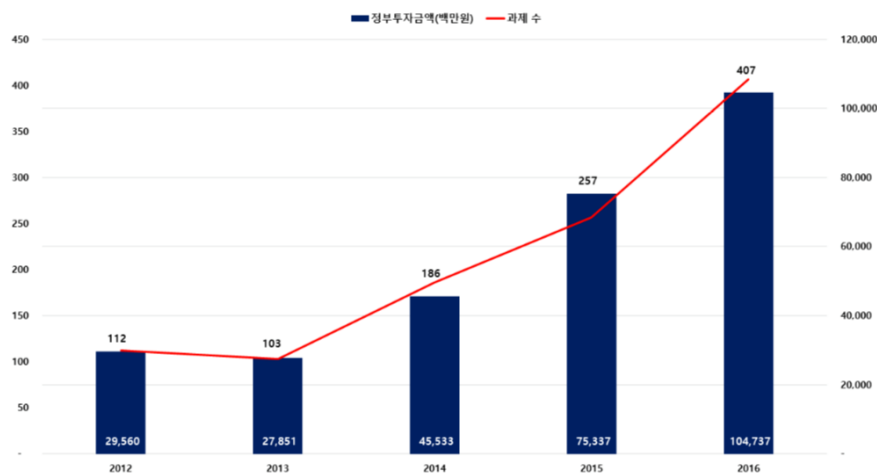
<http://gametoc.hankyung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1258>)

(+증강현실 시장:



▲ 증강현실의 유망한 미래

출처: 테크 M



- 문제점?: 시작 비용 (포켓몬고 경우에는 \$450-600K <https://www.quora.com/How-much-did-it-cost-to-build-Pok%C3%A9mon-GO>)

예시:

